코로나 후 중국인 관광객 공백 못 메워

도, 2019~2021년 관광객 소비동향 분석 결과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흡수로 내수시장 회복
씀씀이 큰 중국인 사라지면서 전체 금액 감소

코로나19 발생 후 해외 대신 제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이 늘며 제주 관광산업의 내수 시장은 회복됐지만 씀씀이가 큰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진 탓에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이뤄진 BC신용카드사 결제 금액을 토대로 조사한 제주 관광객 소비 동향 분석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제주를 찾은 국내 관광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6872억5600만원으로, 2019년 6402억 9300만원보다 7.33% 증가했다.

관광객 1인당 이용금액도 2019년 3만8806원에서 지난해 4만2065원으로 3259원 늘었다.

제주 방문 내국인의 소비처를 업종별로 보면 택시 운송업 결제금액이 2019년에 비해 112.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이어 마사지업(91.72%), 수상오락 서비스업(63.0%), 빵 및 과자류 소매업(60.6%), 호텔업(40.68)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외국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전체 결제 금액은 2019년 7963억 8200만원에서 지난해 6975억 4500만원으로 14.17% 줄었으며, 1인당 이용금액도 4만6930원에서 3만9600원으로 18.51% 감소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씀씀이가 국내 관광객보다 전반적으로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이후 무사증 입국 중단으로 제주 관광시장에서 사라진 중국인의 공백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019년 BC신용카드 도내 외국인의 결제금액 중 중국인 소비금액이 82% 차지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빅데이터 분석은 코로나19 전후 도내 소비 동향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정책 수립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최적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12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겨울바다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송악산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서귀포시, 녹색 생활환경 분야 825억 투입

서귀포시는 올해 송악산 정밀안전진단, 투명페트병 노다지사업, '치유의 메카' 사업 등 청정환경분야에 825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녹색환경 분야에 62억원을 투자, 위드 코로나(일상회복)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및 탄소중립도시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송악산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안전한 생태탐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람사르습지도시 최종 인증을 목표로 물영아리 습지 보전과 비대면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생활환경 분야에 467억원을 투입해 시민 만족 선진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과 자원선순환 시민참여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투명페트병 자원봉사 연계사업을 종이팩과 폐건전지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행복나눔 재활용장터 신규 운영, 플로깅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신규 특수시책으로 투명페트병 노다지사업을 통한 기금 마련에도 나선다.

시는 이와 함께 공원녹지 분야에 243억원을 들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제주형 생활숲 확대 및 기후 변화대응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한다. 올해 완료되는 도시바람길숲을 비롯해 생활숲, 나눔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방지, 휴게공간 제공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산림휴양 분야에 53억원을 투입해 시민이 행복한 산림복지 선도도시를 조성, 서귀포시를 산림휴양·치유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입장이다. 서귀포 치유의숲을 거점으로 웰니스 숲 힐링·치유행사, 지역자원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자원순환형 친환경·녹색도시 구축

제주시, 올해 청정환경분야 1400억 투입 추진

제주시가 올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친환경도시와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환경도시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예산 1400억원을 투입,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시는 우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운반·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65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제주시 전 지역에 재활용도움센터내 음식물감량기 30대 설치와 17개소의 도움센터 신설에 51억원을 투입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난에 대비하고, 고품질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에 진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친화형 업사이클링센터를 상반기에 준공하고, 제주시민 업사이클링 아카데미도 추진한다.

시는 또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예산 61억4000만원을 투입, 청정자연환경의 가치 보전과 자연자산의 육성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환경 가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구축을 위해 오름·습지·용천수 정비에 14억원, 야생생물 피해예방과 생태계보호에 12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람사르습지·동백동산 등 친환경적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예산 7억8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 녹지 공간 확대에 267억원을 투입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제주를 대표하는 휴양명소인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도 19억원을 들여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과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성산지역 중심 키위특화단지 조성

11억6000만원 투입… 월동무 과잉생산 해소 기대

서귀포시가 감귤 대체작목 육성 및 월동무 등 월동채소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성산지역을 중심으로 키위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올해 자체재원 7억원과 농가 자부담 4억6600만원을 포함해 11억6600만원을 투입, 2ha 규모로 키위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매년 20여명 안팎의 농업인을 육성하고, 최종 재배농가 100호 이상·재배면적 50ha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비가림하우스를 비롯해 물탱크, 난방기, 개폐기, 덕트 설치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공모는 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2021년 서귀포시 시정 주요성과 브리핑'에서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예산 5억원을 투입해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감축, 이를 대신해 키위재배면적을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월동무는 단작 및 과잉생산이나 태풍·폭우 피해 등으로 농가소득이 늘 불안정하다"며 "감귤이나 월동무의 대체작목으로 키위를 국산화한 품종을 중심으로 성산지역에 키위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 매년 과잉 생산으로 수급 조절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월동무의 재배면적을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연구가 지난해 나왔다. (사)제주월동무연합회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용역한 '제주 월동무 적정 재배면적 추정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비 가격을 지지를 위한 월동무 적정 재배면적은 3913ha로 전년 대비 34.7% 감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백금탁기자

한라봉·천혜향 등 만감류 3월 이후 출하 장려금 지급

제주시는 고품질 한라봉이나 천혜향의 적기출하를 통해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 3월 이후 만감류 출하 물량에 대해 출하조절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역 농·감협 유통센터로 만감류를 계통출하 하는 농가이다.

지원대상 품질기준은 한라봉, 천혜향 모두 13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이며 무게는 한라봉 250g 이상, 천혜향 200g 이상이다.

장려금 신청은 농·감협 유통센터, APC에서 오는 21일까지 가능하며, 농가당 최대 1만kg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윤형기자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 귤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귤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 8년생
·레드향(무독) 1, 4년생 ·궁천 변이지(오하라베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4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종묘 공급]

포트묘란? ▶ 잔뿌리 형성과 뿌리손상 방지 ▶ 미수익시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잔뿌리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귤 / 금귤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원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장원농장 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 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083 / 제 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국내개발 우수한 [우리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예감

원터프린스 [대조품종 : 황금향]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하례조생 [대조품종 : 궁천] ❖사라향 [대조품종 : 천혜향]
❖탐나는봉 [대조품종 : 한라봉] ❖제라몬 [대조품종 : 레몬]
과수농가 우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미니향(고당도) 오하라베니(궁천변이지)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댕유자, 아마나스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감귤묘목 분양
※ 만감류
● 원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2년생
● 미니향 2년생 ● 레몬3년생,
● 제라몬2년생 ● 미니몬1년생
● 하귤(아마나스)1~4년생
※ 극조생 &조생
● 궁천조생1~3년생 ● 유라조생1~2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히노아까리 3년생
● 오하라베니와세(궁천변이지) 1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원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外
※ 탱자묘목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外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 -1082